

# 가정 예배 모범

- 2022\_10\_09\_장기중앙교회

## 매일성경 10월호 가정예배\_성서유니온 선교회 홈페이지 자료실

▶ **함께 기도 (예배를 시작하며 기도문을 읽습니다)**

=> 우리 안에 죄의 모습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. 우리 가족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시고,  
이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.

▶ **함께 찬양 (가족 모두 잘 아는 다른 찬양을 해도 좋습니다)**

=> “변찮는 주님의 사랑과”(찬270장)

▶ **함께 읽기 (주일 본문을 가족들이 돌아가며 읽습니다)**

=> 사무엘하 13:23~39

▶ **함께 묵상 (질문을 따라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)**

**1)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기 위해 종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? (28절)**

압살롬은 암논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왕의 모든 아들을 양털 깎는 행사에 초대합니다. 그는 종들을 불러 암논이 술을 마시고 취해 있을 때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. 압살롬은 암논이 다말을 추행한 그 날부터 암논을 죽이려 결심했었습니다. 압살롬은 암논이 아무런 심판도 받지 않은 채 살아가는 모습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. 압살롬은 진정한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이 모든 일을 맡기기보다 자기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 암논을 살해하게 됩니다. 우리의 삶 속에 때로 이해하지 못하는 불의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 가운데도 내가 심판자가 되어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우리 가정이 되길 기도합니다.

**2) 암논의 죽음 이후에 압살롬과 다윗은 어떻게 행동합니까? (37절)**

다윗은 암논이 살해당한 사실을 듣고 통곡합니다. 나중에 압살롬이 다윗을 피해 도망했다는 사실을 듣고 날마다 그로 말미암아 슬퍼했습니다. 다윗은 암논과 압살롬, 두 아들들을 한 날 동시에 잃게 된 것입니다. 아버지로서 암논을 꾸짖고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훈계했다면 이런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. 그러나 그는 노하기만 할 뿐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. 다윗은 암논의 악행 이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던 부모로서의 안일함을 자책했을 것입니다. 우리는 다윗처럼 내 삶 속의 죄악을 무심코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나요? 내 속의 작은 죄가 자리 잡을 때, 바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길 기도합니다.

▶ **함께 나눔 (한 주간의 일들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)**

▶ **주기도문 (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)**